

9월 19일(월) / 미1-4

▶**내용요약:**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 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의로우며 사랑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1장은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에 내릴 형벌을 예언한다. 2장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가 나오고 이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다.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범죄와 정의를 저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장은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말씀한다.

▶**질문:** 본문에 따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3장)

▶**생각하기:** 미가서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 중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의 죄이다. 3장 11절에 보니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지도자들, 샅을 위해 교훈하는 제사장들,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크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신다.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성서인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9월 22일(목) / 합1-3

▶**내용요약:**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한다. 1장은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선지자가 불평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에 대해 다시 불평한다. 2장은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선언하신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 )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2장)

▶**생각하기:**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말씀을 시작한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은 악인이 잘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을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Sola Fide(오직 믿음)!!!**

9월 25일(주일) / 속1-4

▶**내용요약:** 스가라서는 선지자이며 체사장이던 스가라의 기록이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룬다. 메시아의 능력과 나라에 대해 예언한다. 1장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오랫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경고한다. 이어 두 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신다. 2장은 세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9월 20일(화) / 미5-7

▶**내용요약:** 5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다스릴 왕국을 예언한다. 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이 구하는 것이 정의와 사랑임을 밝히신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에 징계를 받는다. 7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회복하는 역사도 허락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 )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장)

▶**생각하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5:2)는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된다.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우리도 세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자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앙의 거인들이** 되자!

9월 23일(금) / 습1-3

▶**내용요약:** 스바나서는 스바나 선지자의 기록으로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다. 1장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으며 여호와가 분노하셨기에 철저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한다. 2장은 이웃 나라들이 벌에 대한 예언으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고한다. 3장은 예루살렘의 포학으로 인해 임할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이 선포된다.

▶**질문:** 모압 자손과 함께 멸망할 자손들로 고모라 같이 될 것이며 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황폐케 될 나라는?(2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1장에서는 유다의 죄로 인한 분노와 함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3장에 가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3:17)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해야할 때가 아닐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측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예루살렘 건설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3장은 스가라가 본 네번째 환상으로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며 다스리실 것을 말씀한다. 4장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오면서 스룹바벨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

9월 21일(수) / 나1-3

▶**내용요약:**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의 기록으로 한때 강성했던 니느웨의 죄악과 멸망,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다룬다. 1장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자기 백성에게는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신다. 2장은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보내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어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한다. 3장은 니느웨 멸망의 원인과 폐허가 된 도성의 비참한 모습을 기록한다.

▶**질문:** 니느웨의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함에도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손뼉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3장)

▶**생각하기:** 나훔서는 니느웨를 도성으로 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다. 사실 바벨론은 전성기 때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없는 최강의 국가였지만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이 버리시자 니느웨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니느웨의 멸망이 교훈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한정된 세상의 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위해 살자!

9월 24일(토) / 학1-2

▶**내용요약:**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의 기록으로 학개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목적은 성전 건축을 위함이었다. 1장은 성전 재건을 중단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재해의 원인이 성전 재건의 중단에 있음을 밝히신다. 결국 백성들의 순종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다. 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전의 영광과 의미가 기록된다.

▶**질문:**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유다 총독이며 스알디엘의 아들은 누구인가?(2장)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음에도 건축 작업을 중단하고는 재건의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핑계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다(1:9)고 말씀은 기록한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게 성전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기 욕심만을 채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 )으로 되느니라”(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담대히 성전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서인들이 되자!